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1월 7일(주일) 제1367호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CGNTV 정기후원 약정 ... 약정서, 전화, 홈페이지 동참 드림통 수거 및 특집 다큐멘터리 <미씽유> 방송

11월 6일(토)과 7일(주일)은 CGNTV 정기후원 약정하는 날이다.

CGNTV가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를 주제로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11월 6일과 7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CGNTV 홈페이지에서 참여하면 된다. '신규후원'과 '증액후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해서 신청하면 된다.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개최한다. 미주 온누리비전교회에서는 11월 7일, 일본 비전교회에서는 11월 28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한다.

CGNTV는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복음을 전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올해는 기독교 최초로 기독교 OTT '풍당'을 오픈해서 코로나 19 시대 성도들의 온라인 신앙생활과 온라인

목회를 시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현재까지 기독교 OTT '풍당' 이용자가 7만 명을 넘었고,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해서 온라인 목회를 하는 교회가 140개를 돌파했다.

순수복음방송 CGNTV는 오직 성도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CGNTV를 후원자들은 후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고백한다. 주선에 교수는 "CGNTV 개국부터 동역하고 후원하고 있다"면서 "CGNTV를 후원하는 것

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4면>

CGNTV는 11월 6일과 7일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서 드림통도 수거한다. 교회 로비에 설치된 CGNTV 안내데스크나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CGNTV가 정기후원의 달 특집 다큐멘터리 <미씽유>도 방송한다. 코로나 19로 소천한 선교사님들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씽유>는 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20분, 오후 8시 세 번에 걸쳐 방송한다. CGNTV 유튜브 채널과 기독교 OTT '풍당'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문의: 02-796-224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

11월 17~19일 서빙고 본당 및 온라인(Zoom)

2021 온누리회복축제가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사흘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이번 회복축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성도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영적인 돌봄을 위한 전문적인 강연이 이어진다. 11월 17일(수) 이재훈 담임목사, 박성심 사모(미국 심리치료사), 박상미 소장(더공감마음학교 대표), 18일(목)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오원웅 박사(마음공장 심리치료 연구원장), 19일(금)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간증과 특순도 풍성하다. 구인유 작가(대화식 말 씀기도) 저자, 파워임팩트, 한마음정신회복예배 간증, 손인경 교수(바이올리니스트)와 사랑챔버,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스킷드라마 특순 등을 선보인다.

온누리회복축제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11월 7일까지 1차 마감한다. 2차 마감은 11월 14일이다. 회비는 2만 원이다.<관련기사 6면>

예배당 수용인원 50%까지 확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예배당 예배에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토요주일예배, 일요일예배,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주중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 예약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된다. 차세대, 대학청년부, 국제부 예배도 허용된 인원만큼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토요주일예배와 일요일예배에 본당과 부속실을 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1,510명, 양재온누리교회 1,450명, 부천 450명, 인천 500명, 수원 200명, 대전 300명, 대전 세종교육

관 120명, 평택 150명, 남양주 200명, 강동 300명, 양지 400명, 서산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성가대와 챔버 인원도 확대된다. 성가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기준으로 80명 이내로 구성된다. 11월 셋째 주일부터는 특순도 한다. 챔버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세례식도 재개된다. 11월 세례식은 27일과 28일, 12월 세례식은 18일과 19일에 진행된다. 세례식에는 예배별 12명이 참여한다.

/ 홍하영 기자

깨어나라! 일어나라! 행동하라!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차금법, 가족법, 평등법 반대 1인 시위



지난 10월 24일과 31일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소속 장로들이 서빙고온누리교회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차금법과 가족법, 평등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대표 양유식 장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이하 차금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하 가족법),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평등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라, 일어나라, 행동하라!’를 표어로 내걸고 지난 10월 24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와 10월 31일(주일)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했다.

차금법과 가족법, 평등법 반대 1인 시위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소속 장로들이 1시간씩 돌아가면서 차금법, 가족법, 평등법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이어갔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는 성도 760명이 차금법과 가족법 반대 서명에 동참했고, “시위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성도는 37명이었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는 성도 8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성도 39명이 시위에 함께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양유식 장로는 “차금법 등은 사회의 인륜과 도덕을 파괴하고 종교의 자유, 특히 교회의 설교의 자유와 전도를 억압하고, 결혼제도와 가족의 해체를 야기하는 무서운 악법”이라면서 “악법을 없애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권면했다.

박동현 장로는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제도와 악법들이 팽배한 시대”라고 진단하면서 “하나

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차금법과 가족법, 평등법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개인, 공동체, 순, 다락 방별로 참여할 수 있다. 성도 개인이 집 근처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변화가, 지하철역 근처에서 차금법과 가족법, 평등법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 내외로 1인 시위를 해도 된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에서는 차금법과 가족법, 평등법 반대 1인 시위와 더불어 차금법 및 가족법, 평등법 바로 알기 강의 등도 하고 있다. 1인 시위를 위한 피켓은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가 어려운 성도들은 대한민국장로연합회에 문의하면 피켓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차금법과 가족법, 평등법 반대 1인 시위에는 사랑의교회와 지구촌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영락교회와 새문안교회 등 여러 대형 교회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 시위에 함께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5233-2995

/ 김영선, 홍하영 기자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표 양유식 장로와 일문일답

교회가 먼저 깨어나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결국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법안들입니다. 몇몇 국회의원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이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만드는 법안들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면 법정 제재를 받게 되고,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족파괴법이자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선천적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취향의 문제입니다. 2019년 사이언스지에 Andrea Ganna와 그의 동료들이 47만 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동성애 유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동성애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국내 에이즈 환자 신규 발생 원인 90%가 남자와 남자 간 항문성교입니다. 전국에 8천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매년 이들의 치료비가 1천8백억 원이 드는데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명령입니다. 그런데 동성 부부는 씨앗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음지로 내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고 건강한 성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이 문제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 국민을 깨워야 합니다. 이 법안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성도들도 잘 설명해 드리면 깜짝 놀라면서 ‘반드시 반대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나서서 시민들의 인식을 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도 각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해야 하는 핵심 정보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시간 내외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운동이 전국의 교회와 거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직접 제작해도 되고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을 통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피켓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장로연합회에서 구매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거짓된 메시지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기도하고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억압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에게 진리를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꼭 함께 해주십시오.

시위라고 표현하니가 불안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는 폭력 시위가 아닙니다. 데모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조용히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1인 시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법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열심이 아닙니다. 태도도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는 종교 지도자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종교 간의 차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에게 우리를 내어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내세만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올 때 입고 오는 옷이 아닙니다. 모든 일상에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늘과 땅에 걸쳐있고, 모든 시간과 존재와 관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 단계 믿음을 요청받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며, 인정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그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지적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16절).

베드로조차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도구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 당시 다른 세계와 민족의 어떤 법전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윤리적 체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법전 체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하고 초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정의가 담겨 있고, 공의가 담겨 있고, 공정과 상식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어떤 법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만든 것처럼 착각했고, 그것을 유대 민족이라는 민족주의와 선민의식을 강화하면서 국가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한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탁월하게 하려고, 그 민족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 민족에게 주목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자랑했고, 민족주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15~21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셨습니다.”

다. 유대민족이 먼저 율법 앞에 서 보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고, 다른 족속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시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민족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너희를 구속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3:19-20).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위기 앞에 있는 인간들에게 메시야가 보입니다. 구원자가 보입니다.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깊은 계곡에 빠진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비전이 보입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죄의 늪에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롬 3:24).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감옥에 잡혀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경제적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일정 기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몸으로 빚을 해결하는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값을 지불해서 다시 자유롭게 될 때 그것을 ‘구속(redemption)’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는 ‘모두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속의 죽음이라는 선언입니다.

2000년 6월경 미국 버지니아주에 한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사 앞에 선 피고인은 청각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월세를 갚지 못해서 집주인에게 고소를 당해 재판정에 섰습니다. 법의 논리대로 하면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를 체납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선고 직전 잠시 휴정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지갑을 가지

고 왔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변호사에게 그 부부가 내지 못한 월세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고소의 근원을 직접 해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부부가 판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기대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런데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속의 한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속에 이것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해도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을 무너뜨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가톨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믿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둘째,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20절).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큼니다. 제가 주일 학교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를 위한 문답을 할 때 주기도문을 암송했는지, 사도신경을 암송했느냐는 기본이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답을 말한 것 같은데 틀렸다고 했습니다.

〈13면에 계속〉

CGNTV 후원자를 만나다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CGNTV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CGNTV의 역사는 곧 후원의 역사다. CGNTV는 오직 성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이다. 매월 3만8천여 명의 후원자가 CGNTV를 위해 기도하고 정성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후원자들을 만나서 CGNTV를 후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안도현 성도는 “CGNTV를 시청하면서 받은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주선애 교수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근형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를 후원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안도현 성도, 주선애 교수, 임근형 성도(좌측부터).

경기도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역곡역 2번 출구로 나와서 10분쯤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역곡주방’이다. 역곡주방은 연인들이 특별한 데이트를 하거나 지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생일파티, 연말모임 등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다. 역곡주방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역곡주방의 주인장 안도현 성도(부천온누리교회 청년부)는 취업해서 CGNTV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표였다. 2년 전 취업에 성공했고 꿈에 그리던 CGNTV 후원을 시작할 수 있었다.

“늘 마음만 먹고 있던 CGNTV 후원을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취업하고 CGNTV 후원을 시작할 즈음 코로나19가 확산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CGNTV를 시청하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CGNTV를 시청하면서 받은 위로와 은혜를 더 많은 분께 나누고 싶어서 CGNTV 후원금을 늘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안도현 성도의 월급은 CGNTV 후원금을 늘릴 정도가 아니었다. 빠듯했다. 안도현 성도는 CGNTV 후원금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섰다. 고심 끝에 선택한 부업이 집 근처에서 공유공간인 역곡주방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안도현 성도는 역곡주방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CGNTV 후원금에 보태고 있다.

“하나님이 제게 시간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게 정말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게으른 종처럼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심고 거두고 흘려보낼 수 있는 부지런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시대지만 CGNTV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꼭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98세 노교수와 CGNTV의 동역

주선애 교수는 개국 때부터 CGNTV와 동역했다. 주선애 교수에게 CGNTV와 동역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용조 목사님이 서대문에 작은방 하나 얻어서 연예인 성경공부를 시작했을 무렵부터 함께 다녔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늘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이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어요”라고 하시더니 CGNTV를 개국하셨습니다. CGNTV 개국예배에 참석해서 ‘이거 돈이 만만찮게 들어갈 텐데 참 용감하게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많은 일을 하면서 방송국까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불쑥 ‘하용조 목사님이 워낙 일을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감사가 몰려왔습니다. 제가 CGNTV를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앞장서고 싶습니다.”

주선애 교수에게 CGNTV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특히 CGNTV를 시청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울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를 뛰어넘어 황송하기까지 했다.

“CGNTV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CGNTV와 동역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CGNTV를 후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CGN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국이 그리롭고, 말씀에 목마르고, 예배를 갈망하는 선교사들이 CGNTV 시청하면서 울고, 웃는 모습을 보면 감사를 뛰어넘어 제 마음이 얼마나 황송한지 모릅니다.”

주선애 교수는 올해 CGNTV와 특별한 동역을 하고 있다. CGNTV 후원금을 증액하고 후원자들을 모았다.

“강원도 원주에 독신 여성 선교사를 위한 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됐습니다. ‘모금해야 하는데 이거 큰일났다’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CGNTV가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CGNTV 후원금을 늘리고, 독신 여성 선교사들도 CGNTV 후원자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CGNTV와 동역할 것입니다. 영원한 저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준 기독 OTT ‘풍당’

임근형 성도는 지난해부터 매일 유튜브를 시청하는 습관이 생겼다. 태블릿PC를 사면서 사은품으로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긴 습관이었다.

“지난해에 태블릿PC를 구매했습니다. 사은품으로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날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시청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TV, 만화, 잡지 같은 미디어와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미디어에 빠지는 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임근형 성도는 그의 말대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영상이 임근형 성도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았다.

“집을 짓거나 과학실험을 하는 영상에 빠져서 앉은 자리에서 2시간씩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이 하다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닌데 말입니다. 죄의식 같은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미디어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CGNTV가 기독 OTT ‘풍당’을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근형 성도에게 기독 OTT ‘풍당’은 영적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는 선봉장이자 든든한 동역자이다.

“‘풍당’에는 양질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한 콘텐츠가 많아서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바이블맨’을 정말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미디어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 CGNTV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CGNTV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후원하고 있고, 주변에 CGNTV와 기독 OTT ‘풍당’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 CGNTV와 동역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서둘러 함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 문의: 02-796-2243

“이 컵라면은 무슨 맛인가요?”

손으로 읽는 세상 ‘점자’가 꼭 필요한 이유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이었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점자의 날은 올해로 95주년을 맞이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문자 생활에 꼭 필요하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은 촉각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상에서 점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 흔히 사용하는 노트북, 스마트폰, TV 리모컨은 물론이고, 취향대로 골라 먹는 과자나 음료에도 점자 표기가 없다. 심지어 의약품에도 점자 표기가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각장애인도 있었다. 점자의 날을 보내면서 그동안 우리가 무관심했던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이 컵라면은 무슨 맛인가요?”

기자가 몇 년 전 시각장애인에게 받은 질문이다. 편의점에서 작은 컵라면 하나를 들고 머뭇거리면서 물어왔다. 그 질문은 매콤한 신라면을 먹을지, 가장 좋아하는 너구리를 먹을지, 그것도 아니면 오랜만에 짜파게티를 먹을지 고민하고 있던 기자를 멍청하게 만들었다. 기자가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은 옆 사람에게 컵라면 맛을 물어도 될지 고민했다. 같은 편의점에서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똑같은 질문을 몇 달 전에도 받았다.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화상채팅 앱 ‘Be My Eyes’에서 받은 질문이다. 몇 년이 흘렀고, 장소도 달라졌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컵라면 맛을 구별할 수 없었다.

컵라면뿐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취향대로 먹는 과자와 음료수도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행운이 따라야 원하는 맛의 과자를 먹을 수 있을 정도다. TV 채널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다. 세탁기에서 행균, 탈수, 세척 등 원하는 기능을 찾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의약품도 알맞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에 점자 표기가 없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언어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언어다. 점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듯이 그 나라에 맞는 점자가 따로 있다. ‘훈맹정음’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한글 점자는 일제강점기 시절 제생원 맹아부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 만들었다.

박두성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 영어와 일본어 점자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맹아부 학생들을 위해 1923년 시각장애인 9명이 모인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점자를 만들었다. 일제의 눈을 피해 밤마다 불을 끄고 점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여섯 개의 점으로 글자를 표현하는 ‘6점식 점자’를 개발했다. 오랜 노력 끝에 1926년 11월 4일 최초의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발표했다. 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고를 때 비장애인의 시선(좌), 시각장애인의 시선(우).

날을 기념하는 날이 ‘한글 점자의 날’이다.

훈맹정음이 발표된 지 95년이 흘렀다. “훈맹정음은 눈먼 이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던 박두성 선생의 바람대로 많은 시각장애인이 한글 점자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 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수학도 공부하고 있다. 점자 악보로 음악을 공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에 점자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점자가 표기되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있는 점자 안내판도 훼손된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유도블록(‘점자블록’이라고도 불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바닥에 설치한 울퉁불퉁한 블록) 위에 화분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있어서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기자가 앱 ‘Be My Eyes’로 연결된 시각장애인 한소망 씨(가명, 23세)에게 물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 결과지가 우편으로 도착했는데 저는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결과지를 점자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고지서 같은 우편물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Be My Eyes’ 앱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한소망 씨는 얼마 전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위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큰 사고를 당

할 뻔했다.

“요새 전동킥보드 많이들 타시잖아요? 그런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점자블록 위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블록을 따라 걷는데 그 위에 다른 물건이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친구 만나러 가는 길에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 이랑 팔꿈치,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넘어졌는데 만약 차가 지나고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일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이 돕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한소망 씨는 작은 관심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지금처럼 ‘Be My Eyes’ 앱으로 도움을 주시거나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물어 주시는 작은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컵라면 몇 개에 점자 표기가 들어갔습니다(웃음). 제가 직접 컵라면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게 제게는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작은 관심과 변화들이 모이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은 관심과 실천

시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심이 무엇일까? 우선 안전을 위한 것부터 고민해보면 좋겠다. 거리나 공공장소 바닥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끔 환경

미화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위에 커다란 화분이나 의자 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 또한 아무 곳이나 주차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을 막아서는 경우가 많다.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유도블록 위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거나 주차하지 않는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 한다.

시각장애아동들을 위한 점자책, 점자교구재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다. 점자책, 점자교구재 키트(kit)는 사회적기업 ‘(주)담심포’에서 운영하는 ‘두맘’ 사이트(domom.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주)담심포는 시각장애아동들이 점자를 배우는 데 도움을 주는 놀이책과 교구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점자책, 점자 교구재 키트를 구매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 (주)담심포 주소(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210호)로 보내면 점자도서관과 맹학교 시각장애아동들에게 전달된다.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함께 만들어서 후원하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표기된 점자 안내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면 된다.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앱 ‘Be My Eyes’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앱 ‘Be My Eyes’에 자원봉사자로 회원 가입하면 실시간 화상채팅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전제품에 적힌 글자 읽어주기, 상표 읽어주기, 전자제품 또는 컴퓨터 화면 읽어주기, 옷 구별 및 매칭하기, 키오스크 이용 등을 도와줄 수 있다.

2021 온누리회복축제를 앞두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심리적 어려움 대처법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전기지 만들고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증진' 과 '영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2021 온누리회복축제가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본지에서는 2021 온누리회복축제 강사들의 글을 연재하고 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배시는 박사(온누리상담센터 슈퍼바이저,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자).

/ 편집자 주



배시는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슈퍼
바이저, 한국상담학회
수련감독자)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 생활 지장 정도가 메르스나 경주 지진의 약 1.5배, 세월호 참사의 1.4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 블루(COVID 19로 인한 우울감), 코로나 레드(코로나 블루를 넘어서는 불안, 우울 감정의 장기화로 인한 분노), 코로나 블랙(장기화된 COVID19로 인한 좌절, 절망, 암담함)이라는 용어가 대중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한국심리학회지의 상담 및 심리치료 연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일반 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연구참여자 48.8%가 불안을, 29.7%가 우울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불안'이 높은 집단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19 감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어서 두렵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했다', '삶의 질이 낮다', '평소 갖고 있던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커졌다' 등이었다. '우울'이 높은 집단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코로나19 이후 삶을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렵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가족과의 갈등이 커졌다' 등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 평소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존재할수록 팬데믹 상황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평소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나의 문제 바라보기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법은 없다. 대처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다. 인류에게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역사 가운데 늘 있었다. 그래서 인류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을 물리치고자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풍요롭고 비교적 안전하게 느껴지는 문명을 만들면서 살아왔다. 개인의 삶에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늘 있다. 1시간 이후 상황도 우리는 알 수 없다.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경우에 따라 학습과 경험으로 미리 생각하고, 위험을 피하는 행동을 하면서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비할 수 없는 낮은 상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받아들이기는 고난도 기술이다. 긍정적 생각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받아들여지기를 도와줄 수 있다.

긍정적 생각하기는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등장하는 말이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다. 주변에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면 조금 쉬워진다. 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긍정적 인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과 말이 변

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 마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할 경우 온전히 내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위축되어 침울하게 된다. “그럴 수 있지”라는 태도로 나의 말을 내가 듣는다면 온전해진 상태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불안을 느낄 수 있지’라며 그 불안한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몸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찾아 분주하게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다. 오랜 시간 마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마음의 갈등은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이다. 갈등이 생기면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이 어떤 것인지 찬찬히 보고 듣고 온전히 느끼는 과정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때 자신에게 “00야, 너 기분이 어떠니?”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려는 노력이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

화될 수 있다. 감사와 칭찬을 하루에 몇 개씩 찾는 훈련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은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라는 생각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받아들이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 대처하는 방법

평소 고민이나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마음의 훈련, 영적 생활, 관계의 질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마음의 훈련은 자신의 마음을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이다.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떠나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조용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QT, 묵상,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마음을 듣는 작업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면 가장 먼저 나

슬픈 거야 아님 서운한 거야?”라고 친절하게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면 좋겠다. 일기를 쓰듯 글쓰기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가도 좋다. 마음과 긴밀하게 붙어있는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 몸의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활동,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지 구분해서 풀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경험에 대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의 전후 관계,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서 문제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어서 포기하거나 취해야 할 부분을 알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을 꾸준히 보면서 자신을 반추하는 훈련과 말씀의 깨달음을 공동체를 비롯한 가족, 친구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경험 쌓기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의 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라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연습을 한다. 걸음마를 하면서 중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엄마가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앞을 보고 다시 걸어간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엄마 품에 안긴다. 엄마 품을 심리학자 존 볼비(John Bowlby)는 ‘안전기지’라고 했다. 안전기지는 아기가 외부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자 동시에 심리적, 정서적 재충전을 제공한다. 우리에게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안전기지 대상이 필요하다.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서로에게 안전기지가 되어 줄 수 있다. 안전기지는 상대가 나에게,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환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를 해주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밀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친밀하고 안전한 느낌은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이 있을 때 가능해진다. 우리는 나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깊은 교감을 경험한다. 친밀함과 안전함을 경험한다. 하나님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품에서 안식하고 위로받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은 매우 작아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한 팬데믹 같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 삶에서 크고 작게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려는 노력이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의 고민과 심리적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어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관점과 태도의 문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새 직장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무교)가 점을 보고 왔는데 제가 12월에 직장을 옮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솔깃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가 알려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대학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가야 할까요? 취업해야 할까요?”, “목사님, 이 형제(혹은 자매)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일까요? 아닐까요?” 등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묻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많다.

사역 초기 청년들에게 이런 물음을 받거나 상담을 요청받으면 큰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청년들의 고민과

물음이 한가한 사변적 질문이 아니라 삶과 맞닿은 절실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물음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나 해답을 제시하고 싶은데 목회자인 나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통찰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거나 묻는 상황은 대부분 어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면 대부분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다. 예컨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벧전 3:17),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등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한 가지

“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인 원동력이다.”

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거나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명확한 대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떠올린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답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물음에 천착(穿鑿)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규명하는 본질적 물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나의 영적인 시선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을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되풀이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이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떻게?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우리의 영적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정의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회사를 그만두든, 계속 다니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다만 물음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정한호 목사
(하늘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비교 대신 칭찬, 감사, 격려의 말!

“부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종종 다릅니다.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비교’입니다. 다른 남편들이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자상한지 정말 부럽다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올라옵니다. 서운한 마음이 한가득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비교할 때도 있고, 스스로 비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은 열등감이 강한 자극을 받게 된다. 잠재되어 있던 열등감이 솟아나게 되고, 열등감은 자존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열등감은 누군가와 비교에서 오는 외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족함을 경험하는 불편감과 고통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에 의한 열등감의 증폭은 자신의 내면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누군가에 의한, 외부적인 부정적 자극이 주어지면서 시작된다. 비교하는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영향력은 강화된다.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비교에 노출된다.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 말을 빨리 하는지, 글을 빨리 깨우치는지, 성적은 반친구들보다 얼마

나 높은지 낮은지, 외모는 누구보다 나은지 부족한지 등 수많은 비교 상황에 노출된다.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고 받아든 성적표는 자신의 능력 위치가 수치화되어 나타난다. 나의 수준은 누구보다 낮고, 누구보다 부족하다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비교 상황에 노출이 지속되면 극복하기 어려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불편감과 불쾌감, 그리고 무력감을 안고 살게 된다. 내적으로는 자기 가치절하, 자기 비난을, 외부로는 비난, 대화 회피, 불만 폭발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비교는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의식중에 비교하거나 비교감을 느끼곤 한다. 간혹 가장 가까운 배우자로부터 다른 부부와 비교를 당하기도 한다. 배우자로부터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 그 심적인 고통은 자연스레 증폭된다.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심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하는 이야기이구나”, “나와 비교하는 말은 아니야”, “그래! 나도 그 남편(아내)처럼 우리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라고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열등감 이슈가 남아 있는

배우자라면 열등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아주 사소한 말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부부 모임이나 부부 세미나에는 많은 유익이 있다. 터놓고 어려웠던 부부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부는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위로와 격려를 얻기도 한다. 다른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번 가정에서 실천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적용을 하기도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는 특화된 모임이 아니면 나누기 힘든 성격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편들은 가정이야기, 결혼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감을 다른 누군가와 잘 나누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모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만 있어도 아내와 남편이 많은 도움을 얻게 되고, 부부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부부 모임에서는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누군가의 결혼 생활을 들으면, 비교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힘들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 모임에서의 규칙 중 하나가 ‘다른 남편(아내)과 비교 금지’가 되어야 한다. 비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열등감을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부부가 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비교보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 누구나 자신의 독특성과 특별함이 비교나 비난없이 수용되어지는 경험을 하길 원한다. 비교로 인한 열등감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누군가의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고, 부부만의 상황과 색깔, 독특성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개인의 특별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중에 하나가 된다. 부부도 부부만의 모습을 수용하고 다른 부부와 비교하지 않는 것이 친밀함과 관계 건강성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최근에 자신의 배우자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부부는 비교를 극복하며 서로를 수용하고, 인정, 격려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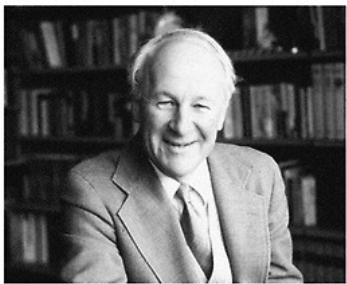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우쿠 엔카쿠멘”(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리더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위한 4가지 핵심 원리

존 스토틀 | IVP 출판

《리더가 리더에게》
존 스토틀 저 | IVP | 7,000원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 두란노서점에서 책 《리더가 리더에게》 30권을 샀다. 원래는 당시 담당이었던 요셉청년부 새가족들과 사역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순장들에게 선물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석 같은 글귀에 사로잡혀 나

게 상담을 요청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선물했다. 그만큼 내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 준 소중한 책이다.

오늘 소개할 책 《리더가 리더에게》는 리더십 교본이 아니다. 이러이러할 때 리더십이 빛이 난다고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의 지점에서 리더십이 생겨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의 삶에서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숙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할 때마다 부연설명을 했다.

“이 책은 순장이 되려거나 리더십이기에 주는 책이 아니야. 이 글귀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보일 거야.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리더가 리더에게》 저자 존 스토틀은 이 책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낙심’이다. 낙심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낙심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목회자의 문제로 인한 낙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역(인생)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낙심이다. 이러한 낙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존 스토틀은 낙심의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지를 말한다. 그러면서 촌철살인을 덧붙인다.

“신앙이란 감정적으로 즐거운 기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삶이다.”

낙심이 찾아올 때 거대한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낙심을 인정하고 빨리 벗어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존 스토틀과 같은 영적 거장이 낙심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요청이 큰 위로가 되었다. 존 스토틀은 이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친다.

“우쿠 엔카쿠멘(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쿠 엔카쿠멘’이라는 글귀가 너무 좋아서 이 책을 접했을 때 카카오톡 프로필, 페이스북 첫머리 등을 ‘우쿠 엔카쿠멘’이라는 단어로 도배했던 기억이 있다. 그만큼 낙심하지 말자는 저자의 말이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다. 결국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존 스토틀은 ‘낙심’이라는 함정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리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거대한 함정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사랑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내 벗은 몸이 만민에게 가발려지는 느낌이었다. 신앙인들이 인정해야 하는 낙심이라는 감정의 출발점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의 존재이다. 이것이 존 스토틀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출발이다.

처음 《리더가 리더에게》를 접했을 때 작은 책을 가슴에 안고 펴평 올렸던 것을 기억한다. 존 스토틀이 전하는 리더십 제안이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전하는 이야기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한 나에게는 존 스토틀이 말하는 방식의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너무 뼈아팠기 때문이다. ‘존재의 부재가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살아 만날 수 없는 존 스토틀 목사님이 남긴 글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부재를 보수하고,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길탁 목사
(강남D공동체)

서랍에서 다시 꺼낸 영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로버트 페르난데스 감독
| 2019년 개봉 | 애니메이션

과 그리스도인이 걸어 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엿볼 수 있다.

영화 ‘천로역정’은 티빙(tving), 웨이브(wave), 네이버 시리즈온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가격은 1,200~1,400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소설이자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소설 《천로역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천로역정》은 영국 작가 존 번연의 작품으로 전 세계 20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는데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고전 기독교 문학이다.

그 유명한 소설이 지난 201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소개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들과 초신자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만들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다.

애니메이션 영화 ‘천로역정’은 죄악에 빠진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이 우연히 천국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쓰인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따라 천국도시로 모험을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담았다. 크리스천은 여행 중에 ‘율법 언덕’, ‘세속의 숲’, ‘절망의 성’, ‘허영 시장’, ‘죽음의 골짜기’ 등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겪는데 실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세상에서의 유혹들을 그려냈다. 영화 속 크리스천의 여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

두란노 신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처방합니다》
김정우 저 | 두란노 | 16,000원

들리는 믿음으로 갈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바탕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과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깨우쳐준다.

온누리교회도 성탄절까지 주일예배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한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책 《갈라디아서를 처방합니다》의 1부 제목이다. 다른 복음,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된 이들에게 십자가의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교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처방’이다.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만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할례를 포함한 유대 종교의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언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을 가리는 전통과 규례, 의식 등이 자리하고 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메시지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정우 목사(동산교회)는 율법에 얽매어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한국 교회에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 책을 펴냈다. 혼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내가 창조과학을 처음 접한 것은 오래 전 한 외국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였다. 영상에서 DNA의 구조가 너무 완벽하게 창조주에 의해 '설계' 되었고,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음을 주장하는 빅뱅 이론보다 창조론이 더 설득력 있음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어 나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었다. 또한, 2018년 대구동신교회에 출석할 당시 공동체 예배에 초청된 강사분을 통해 창조과학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 후 지금 직장에 임용되고 한동안 바쁜 삶으로 창조과학에 대해 잊고 있다가 한동대학교를 방문하게 될 일이 있었다. 김영길 총장님의 업적을 듣다가 총장님이 온누리교회의 장로님이었고, 한국창조과학회의 창립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다시 창조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나의 전공분야를 통해서도 작게나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섭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

기본 필수과정인 양육자과정 및 큐티스쿨을 수료한 후 차기 훈련과정을 찾던 중에 창조신앙스쿨이 나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아직 방법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내 전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에게 전해



변용훈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는 창조신앙스쿨을 수강하며 "창조섭리를 높이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말했다.

주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창조신앙스쿨을 들으면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창조과학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신앙체계를 확립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된 것이다. 창조신앙스쿨의 필독서 <궁금해? 궁금해!>를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진화론을 거부하고 현대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기독교인 과

학자들이 파브르, 케플러, 맥스웰, 파스칼, 플레밍, 보일, 뉴턴, 파스퇴르 등 수도 없이 많은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진정한 과학자라면 진화론을 거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 마치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자신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사람을 남겨놓으셨다고 알려주신 것 같은 감명을 받았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싸움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서로 다른 믿음 간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의 가장 먼저 된 이야기인 창세기를 역사적 사실로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새기게 되었다. 이 외에도 창조신앙스쿨을 수강하면서 산소와 생명체 진화의 독특한 관계와 같은 다양한 전공과 관련된 여러 진화론의 모순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신앙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연구하고 있는 전공분야에서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해서 학문을 재정립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창조신앙스쿨 강사님들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창조과학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흠의 구조와 기능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고, 창조주의 섭리를 높이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더욱더 연구에 매진해야겠다.

/ 변용훈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세계관학교 수료 간증

지난 봄 온누리 세계관학교 특강에서 류현모 교수님의 '기독교 세계관 북콘서트'를 수강했다. 그리고 기독교 OTT '풍당'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눈,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시청했다. 나에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는 새로운 분야가 아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을 알고 나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성경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할 때 주님께서 이 주제를 일깨워주셨다.

나는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필독서로 다윈의 <종의 기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탐독하고 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과학 선행학습은 이런 교육을 받는 시기를 초등학교로 낮추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와 성교육센터에서 유물론에 기반한 급진적인 성교육(적극적인 피임교육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받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없는 인권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성과 지성이 자라고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공부하는 내용이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교육이다.

초중고대학의 정규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



이상준 피택장로(강남D공동체)가 온누리 세계관학교와 기독교 OTT 풍당 '세상을 바로 보는 눈,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듣고 "자녀들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녀들이 지적 호기심을 발동하는 초중고 시기에 유명대학에서 추천하는 필독서를 읽기 전에 명확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자녀들이 책과 교육 내용에 대해 비판적, 선택적으로 사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에게 한두 번의 특강

이나 세미나로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부모가 수시로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한 대화나 교육으로 자녀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어린 자녀들의 배움 초기 단계에서 세상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의 조정은 작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부모가 기독교 세계관을 자녀에게 가르치거

자녀 교육과 기독교 세계관

나 토론할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자녀와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이 온누리 세계관학교나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온누리 세계관학교 강의를 주변인들에게 들어보기를 권유했었다. 그분들이 자녀들과 세계관을 주제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기독교 세계관의 논리적 접근에 수긍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진화론 강의를 부모와 함께 듣고 진화론의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고백하는 자녀들도 있었다.

과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정의와 공평을 강조하고, 인본주의와 사회주의와 함께 연대하고 복음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오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풍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와 자녀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 이상준 피택장로(강남D공동체)



온누리교회 성도가 2020년 엔젤트리 게시판에서 사연을 뽑고 있다.

2021 엔젤트리 사연 접수

11월 14일까지 온라인 엔젤트리 게시판

2021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한다. 2021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라인 엔젤트리 게시판(QR 코드)에 사연을 신청하면 된다. 사연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사연, 신청하고 싶은 선물(5만 원 이하, 식품, 상품권 제외)과 접수자의 이름과 소속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오는

11월 14일까지 접수된 2021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0일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온라인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시된다.

2021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온누리교회 성도만 할 수 있다. 외부 기관이나 개인이 사연을 접수 하고자 할 때는 사회선교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엔젤트리를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후원: 하나은행

573-910007-0300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연접수)

성령수련회 참가자 모집

성령수련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20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webex)으로 진행된다. 11월 6일(토) 사전 모임을 한다. 성령수련회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님의 속성과 사역, 권능, 계획 등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11월 1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7120-5221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특강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이상심리의 증상들을 살펴보고, 그 예방과 처방을 배우는 특강 '잠언에 나타난 이상심리'가 12월 3일(금)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관직 교수(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감독)가 '정신병리의 제증상들', '악인의 예후'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5만 원이다. 11월 26일(금)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제5회 KGMLF '선교와 재정' 개최

11월 9일부터 12일 평창 켄싱턴호텔

제5회 KGMLF 한국 글로벌 미션 리더십 포럼이 '선교와 재정'을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된다.

제5회 KGMLF 한국 글로벌 미션 리더십 포럼에는 크리스토퍼 라이트, 벤 토리 등 세계 선교 리더십들이 참석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본부장, 조대식 장로, 정대서 장로 등이 참석한다.

/ 김영선 기자

11월 화요성령집회 '주님의 시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1월 화요성령집회가 '주님의 시선'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화요성령집회에 참석을 원하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 예약 시스템에서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1월 화요성령집회 '주님의 시선'

에서는 2일 김승수 목사 '차별의 견고한 성, 사미리아' (요 4:3-14), 9일 최성민 목사 '상처와 아픔의 집, 베데스다' (요 5:1-9), 16일 김승수 목사 '육함이 깨어진 곳, 베다니' (마 26:6-13), 23일 이서진 목사 '무너진 인생의 자리, 디베랴' (요 21:1-17), 30일 김승수 목사 '헛된 망상의 언덕, 다메섹' (행 9:1-19)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

11월 18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을 위한 '수능 당일 기도회'가 오는 11월 18일(목)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오전 8시 40분부터 12시 40분까지 기도회가 이어지고, 이후에는 개인기도 시간을 갖는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 등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타 교회 성도도 참석할 수 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도 진행된다. 14일(주일) 서빙고 1부 예배, 양재 2부 예배에서 수험생들에게 중보기도를 해준다.

문의: 02-570-7553

"하루빨리 회복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회선교부 질병 앓는 목회자에게 치료비 지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본부 농어촌 지역팀과 나눔장터팀이 양손 마비로 목회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유강교회 강신욱 목사에게 치료비 300만 원을 후원했다.

강신욱 목사는 2020년 5월 '상완 신경총장애' 진단을 받았다. 병세가 날로 악화해서 스스로 운신이 어려

운 상태였다. 그런데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강신욱 목사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했다.

강신욱 목사는 "온누리교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큰 은혜에 힘입어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11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양재 화평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와 기독교 학술원이 공동주최하는 2021 한반도 통일포럼(이하 통일포럼)이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11월 12일(금)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통일포럼에서는 김영한 원장(기

독교학술원장)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한다. 또한 탈북민 사역과 통일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참가신청은 문자메시지로 이름과 소속공동체를 보내면 된다.

문의 및 신청: 010-5792-3290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 모집

상담치료,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

사회선교부 다문화사역팀에서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를 모집한다. 하랑다문화센터는 포천 일대 다문화가정과 다문화 어린이들을 섬기는 예배공동체다.

봉사자 모집 분야는 심리상담(공감, 경청, 수용), 심리치료(미술, 음악, 연극, 독서), 감정코칭, BREBT

치료,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다. 상담 교사는 월 1회(토, 주일 택일),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는 주 1~3회(수, 토, 주일 택일) 봉사하면 된다. 봉사 장소는 하랑다문화센터(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4, 우주빌딩 2층)다.

문의: 010-9129-1476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정오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샤이닝 글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 신청은 구글 폼(하단 QR 코드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3215-3744



*바로 잡습니다
지난주 신문(10월 31일자) 5면에 실린 러브소냐타 야마가타 기사에서 '결신자 83명', '긍정적 반응 38명' 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서유주 성도(인천온누리교회)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병원과 조리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큐티스쿨 강의를 들으며 말씀의 은혜에 흠뻑 빠져서인지 건강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큐티스쿨을 통해 내가 경험한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시 73:28)’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와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셨다. 그런데 나는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마 22:1~14)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느라 돌아보지도 않고 잔치에 가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청함을 제쳐두고 있었다. 주님이 나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데도 나의 분주함과 게으름을 우선순위에 올려두었다. 앞으로는 주님의 청함을 받은 즉시 주 앞에 서기를 다짐한다.

둘째, ‘말씀을 나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큐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개인적인 훈련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큐티의 목적은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 가지 깨달음

완성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막상 큐티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해도 마땅한 공동체가 없었다. 교회 친구들과 나눔을 해보았지만, 지속하기 힘들었다. 신앙 성장에도 한계가 있었다. 교회에 순예배라는 훌륭한 공동체가 있는데도 조금만 부담되거나 귀찮아지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교회 유치부를 섬기면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서로 말씀을 나누기보다 사역 중심으로 교제했다. 앞으로는 순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셋째,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치형 목사님의 강의는 매우 유익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은혜의 깊이를 더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 노하우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헌신하면서 거두어놓은 수고의 열매를 그저 누리는 것뿐이었다. 믿음의 선배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절기에서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알 수 있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김윤정 성도(성북공동체)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는 말씀이 성경의 가장 앞에 쓰인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라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시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쓰여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날 만드심이라’는 찬양이 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이 찬양이 내 입술에서 기쁨의 고백으로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이루심을 직접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창조신앙스쿨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가르침이 전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노아의 방주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알게 했다. 추진기도 없고 방향기도 없었지만 그곳은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안했다. 몇 해 전 ‘노아’를 주제로 차세대 어드벤처를 진행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과 방주 모형을 제작했다. 투박하기 그지없는 방주였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가보지 못한 우주를 상상하고, 그 많은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온 우주 만물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히 11:1~3).

한 달 동안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신앙스쿨 강의는 오해했던 것을 바로잡고 거짓을 거둬내는 시간이었다. 올바른 믿음의 전수를 위해 수고하시는 창조신앙스쿨 사역자님들과 다 음세대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요셉, 라헬 선교사(중앙아시아대국)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가을 문턱에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아플 때 하늘길이 막혀서 가볼 수 없는 상황이 마음 아파 기도하며 지낸 날들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들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 주셨고, 동역자들의 섬김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정권이 장악한 이후 나라를 떠나려고 국경을 넘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 땅이 아프간 난민을 품기에는 버거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NGO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몇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매월 방문해서 생필품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

부림이지만 이곳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살아갈 희망을 놓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선교지 국립대학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전통 의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데 생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한국어 코스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데 캠퍼스 사역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돕는 재봉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편모 가정도 많습니다. 버림받은 여성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지원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코로나19 기간에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내 믿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믿고 있던 것들이 이것이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이것이구나’를 차근차근 정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약자에게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 배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반성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부자 청년의 질문에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런 삶을 사셨다. 나와 내 가족만 잘되기를 바랐던 나의 작은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 경험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상을 위해 헌신해야겠

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았더니 더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대일제자양육은 거울을 보는 시간 같았다. 성경이 좋아서 읽었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서 낙심했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깨닫고 화개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에서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겠다고 다짐했다.

일대일제자양육 하는 동안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양육자님께 감사 드린다. 양육자님의 사랑이 내게 전해져서 평생 감사한 기억을 갖게 되었다.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일대일제자양육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양육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로칼럼

온두라스 목회자들의 헌신 그리고 희생

이동규 장로
(OCC공동체)

얼마 전 온두라스에서 편지 한 통이 왔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8월 비전헌금으로 코로나19로 소천한 온두라스 목회자 가족들을 후원했는데 그에 대한 감사 편지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온두라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이동금지 명령을 내리고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려 했다. 안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일이 끊기고 이동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코로나19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는 상황이 됐다. 감사하게도 지역 유지들이 공간을 풀어 주민들을 섬기는 운동이 온두라스 전역에서 일어났다. 다행히 지역 유지들이 공간을 푸는 동안 UN을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온두라스에 식량을 지원했다. 공무원들이 식량 지급을 담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온두라스 정부는 고심하다 식량 배급을 목회자들에게 일임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경의 날(9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온두라스에서 국민에게 가장 존경받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정부에게 일임을 받은 목회자들은 군인과 2인 1조를 이뤄 식량을 나눠줬다. 온두라스 목회자들은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해서 국민 한 명 한 명을 만나면서 코로나19 시대 종교의 참모습을 보였다. 애석하게도 주민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위로하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가족들은 치료를 받기 위한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 결국 265여 명의 목사님은 소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8월 온누리교회가 순직한 선교사 등을 위한 비전헌금을 봉헌했다. 그중 5천8여만 원을 코로나19로 순직한 온두라스 목사님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후원했다. 후원금을 가지고 온두라스로 향하는 내 마음이 정말 무거웠다. 유가족들 앞으로 남겨진 병원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고려하면 소천한 목회자 265여 가정을 전부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두라스에서 열린 추모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마음의 짐이 씻겨 내려가는 이야기를 들었다. 온두라스 교계에서 후원금을 나누기 전에 모든 유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는데 그 누구도 왜 자신이 후원 대상자가 아니냐며 따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 다른 사람을 더 도와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한 유가족은 “남편이 소천하면서 우리 가족이 잊힌 줄 알았는데 이 전화 한 통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소천하신 목회자 유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사람들로부터 잊히는 것이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그 고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희미해져 갈 때 지구 반대편의 온누리교회에서 도움의 기도와 후원을 건넸다. 유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 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갈 소망과 믿음을 회복했다고 고백했다. 소천한 265명의 목회자 유가족과 265개 교회의 2만여 명의 성도 모두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봉헌한 비전헌금과 기도가 먼 중남미 온두라스 산골들의 2만여 성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었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비전헌금에 동참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권사칼럼

생명을 살리는 ‘작은 기도’

안숙향 권사
(서빙고공동체)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끝났다. 기도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한번씩 홍대입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매주 기도 봉사를 하면서 강력하게 들었던

생각은 ‘이 기도를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도 캠페인은 끝나지만 교회와 성도의 기도는 끝나면 안 된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태문제를 두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봉사해야 한다.

나는 십여 년 전 직원들과 함께 매일 기도모임을 했다. 각자의 기도제목을 두고 기도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역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함께 기도하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제목을 하나씩 주셨다. 어느 날은 우리나라 자살자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주셨다. 낙태반대를 위한 기도와 다른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살자를 위한 기도도 생명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 체험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자살자를 위한 기도를 어느 기간 동안 했다. 생을 끊을 만큼 힘들게 하는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생을 끊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자살유가족들의 아픔에 위로를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에서 투신하려는 두 사람을 구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스쳤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투신하려던 사람을 구조한 것도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누군가는 기도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도 마찬가지로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빠르게 바뀌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나 한 명의 작은 기도가 무슨 힘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 작게 읊조리는 기도도 모두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기도를 빨리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얼마 전 조카가 귀여운 딸을 낳았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울음이 터졌다고 했다. 너무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이다. 똑같이 엄마 배 속에 잉태된 아이인데 몇 개월 사이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이 달라진다. 어떤 아이는 많은 사랑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엄마 배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태아와 산모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건강한 성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육해야 한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기도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주에 이어 플로리다주에서도 ‘낙태금지법안’이 통과됐다. 신규 낙태법에서는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태아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로 간주한다. 낙태 시술을 시행한 의사나 이 과정을 돕거나 방관한 사람들은 1만 달러(약 1,18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태아를 지키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김태완 목사
(강남C공동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떠나 한국에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나간다. 아부다비에서의 추억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 아부다비에서 만났던 K형제와의 기억을 나누고 싶다.

K형제는 서남아시아 Q국에서 노동자로 10여 년 전 두바이에 왔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주님을 잘 몰랐던 그 친구는 대학생 때 어머니의 권유와 신실한 주변 사람들의 전도 덕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인구 90% 이상이 무슬림인 Q국에서 아주 드문 일이다.

K형제는 돈을 벌기 위해 기회의 땅 아랍에미리트에 노동자로 왔다가 미국에서 온 사역자들

과 교제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아부다비에는 수많은 건설공사현장이 있다. 근로자들의 집단 숙소로 ‘레이버 캠프’ (Labor Camp)라고 부른다. 레이버 캠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있는데 K형제가 그들과 만났다. 원래 친화력이 좋고 전도의 은사가 있던 그를 눈여겨본 사역자들이 사역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역자들의 통역을 도와주는 사역자가 되었다. 그러다 출석한 교회에서 국제학교 교사로 온 미국인 자매를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다.

그 이후 그 형제는 선교사들과 함께 섬기던 사역에서 배제되었고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남겨진 그 형제와 자매를 6년 전 한 레이버 캠프에서 우연히 만났다. K형제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웃음을 준다. 사람들을 참 잘 사귀고 만남을 잘 만드는 형제다. 나는 금방 그들과 친해졌고 그때부터 아부다비온누리교회

K형제를 생각하며...

성도 몇 분과 레이버 캠프를 꾸준히 방문하면서 사역을 했다.

2년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K형제와 자매가 이혼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었다. K형제가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 발단이다. K형제는 나를 찾아와서 어렸을 때부터 당했던 폭행, 추행 등 어두웠던 지난날 이야기들과 사역자로 살면서 은밀하게 겪었던 갈등과 방황, 숨은 죄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 형제와 사역을 함께 했으면서 영혼의 깊은 고민과 갈등까지 들어주지 못했고, 그의 내면의 아픔을 분별하지 못했던 목회자 아니 친구로서 너무 미안했기 때문이다. K형제는 한때 전도자이자 사역자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후원과 동역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많은 사람이 떠났고, 노동현장에서 하루하루 일을 구하면서 사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 레이버 캠프에 갈 수 없었고, K형제의 모

습도 한동안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K형제가 마스크를 쓰고 교회를 찾아왔다.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다. 활기분하다고 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게 설 수 있다고 고백했다. 자매와 대화도 시도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상담도 받고 있다고 했다. 아부다비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그 친구와 꾸준히 만났다. 사역자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외롭고 대화할 상대가 없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부다비를 떠나 한국에 온 이후 그 친구는 늘 나보다 먼저 소식을 전해 온다. 며칠 전에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고맙웠다. 언젠가는 그 친구가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여전히 아부다비 인근 어딘가에서 고국을 떠나 열심히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어려움과 맞서 싸우고 있는 형제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해서 다락방(순)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고,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연락처, 이메일을 기록해서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를 포장하시면 됩니다.
 -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해서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서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의 대상은 고3 및 12학년(2003년 이후 출생)까지입니다.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
※보안지역으로 선물을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하실 경우 보안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용어와 보안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 리더십에게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 ① 공산권
 - ② 이슬람권
 - ③ 힌두교권
 - ④ 불교권
 -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를 포장해서 선물을 발송합니다.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는 소포를 포장해서 소포비와 함께 선교단체로 발송합니다.(단, YWAM(예수전도단)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2000선교본부 이정은 간사
- 02-3215-3208
- ov2000@gmail.com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

apost.go.kr나 우체국 대표전화(1588-1300)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31-336-1042
비전빌리지 훈련팀	(1715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04384)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21-2	02-796-9700
더멋진세상	(04553)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08, 602호	02-2271-2246
바울 선교회	(54308)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화포4길 30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08762)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18 2층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0605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0, 703호	031-424-2062
중국복음선교회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한성교회	02-778-3626
BEE KOREA	(069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모퉁이돌 선교회	(04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41-6	02-796-8846
FMnC 선교회	(06698)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 세종빌딩 4층	02-848-6251
GBT 선교회	(1394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8길 73	02-2653-4270
GMP 개척선교회	(0372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0797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한국선교훈련원	02-2649-3197, 070-4066-0114
GO 선교회	(32564)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058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0633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90 B01	070-4006-5300
Inter-Cp 선교회	(04386)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136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31-778-7931
OM 선교회	(13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 현대빌딩 5층	031-698-2372
OMF 선교회	(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SEED선교회	(0668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 선교회	(072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1(영등포동2가) 조광빌딩 301호	02-815-4052~4
WEC 선교회	(0677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0881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4층 / 문의가능 /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142-0907
안산M센터	(1524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031-491-9650
CCC(한국대학생선교회)	(030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2-8	02-397-6200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선물을!

선교사 자녀들을 ‘MK’ (Missionary Kid)라고 부릅니다. MK들은 대부분 성장기를 선교지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체성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MK들은 자신이 왜 선교지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기도 합니다. MK들은 선교지와 한국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 안에서 벗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MK들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MK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삶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인 MK들에게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와 사랑의 선물을 전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 선물이 MK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 이경희 목사(2000선교본부)

선교사 자녀의 간증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아빠가 선교지에 가기로 하고 저와 동생에게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저의 행복할 것 같은 선교지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부모님과 저희 자매는 현지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난생처음 보는 글자, 눈이 큰 선생님들과 아이들까지... 다행히 좋은 아이들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좋은 아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 짝은 제가 알려주는 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꼬집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은 엄청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

셨는지 제가 하는 일에 무조건 트집을 잡으셨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매일 울면서 전학 가게 해달라고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도 학교를 알아보셨는데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매일 기도만 했어요. 제 기도제목을 보신 많은 분의 기도 덕분에 그 선생님이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임신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따라 선교지에서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제가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온유(15세, 우즈베키스탄)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음의 효력을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존 스토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는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믿음(내적)과 세례(외적)를 통해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죽음에 동참했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교인이 되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의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영어로 ‘baptism’, 헬라어 ‘βαπτίζω(바티조)’입니다. 바티조는 ‘물에 잠기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서 다시 나올 때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어떤 침례교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죽인다.”

끔찍하지만 성경적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롬 6:5~7).

우리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

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롬 6:10~11).

마지막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십시오” 이것은 거짓을 사실로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이다’입니다. 여기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을 함께 죽인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여길 때 그 죽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유혹을 받고, 세상의 시험이 오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면 모든 유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죽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믿음, 살아 있는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셋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제 더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20절).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믿는 삶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새사람, 새 생명 가운데 임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여기고, 선포하며, 내 주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아실현이 목표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실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세례란 우리 안에 거둔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체험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엡 3:17).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사시도록 초청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간주하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합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행위 그 자체가 참된 믿음의 증거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담과 연합된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뿐입니다.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과 연합된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임재하시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믿음의 삶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시113:3)

청년창업포럼 ‘어!벤처스’는 7년 전 사회선교부 주관으로 꿈을 잃어가는 ‘9포 시대’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작한 벤처대회다. 일반 벤처 대회와 차별점은 청년창업이라는 테마로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한 크리스천 CEO 멘토 그룹이 책임자문을 해주면서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교회의 CCF(Christian CEO Forum) 멤버를 중심으로 ‘어벤처스 멘토단’이 구성되었다. 그러다 청년들을 돕자는 사랑의 물결이 지역 교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벤처투자가, 변호사, 마케팅 등 영역별 전문가 50여 명의 전문멘토 그룹이 벤처사업 기획단계에서 펀딩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상이 온누리교회의 청년 위주였는데 전국 교회로 확산하면서 현재 70개 팀 청

년 210여 명을 멘토링하고 있다. FWIA(Faith & Work Institute of Asia), CEO스쿨 등과 연합해서 영적인 멘토링도 충실히 하고 있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수상팀에게는 미국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임팩트 투자기관 및 크리스천 사업가들과 네트워크도 넓히고 있다. ‘어!벤처스’는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

첫째, 청년들과 기성세대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동체적 연대감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지금까지 사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선배들의 헌신적인 배려와 전문적인 비즈니스 자문을 받으면서 끈끈한 연대감을 쌓아가고 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청년들의 요청으로 후속 멘토링과 신앙 교제가 이어지고 있다.

둘째, 협업(Collaboration)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 ‘어!벤처스’는 교회 간 네트워크, 크리스천 CEO 포럼, FWIA 등과 협력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혁신적인 임팩트 벤처 대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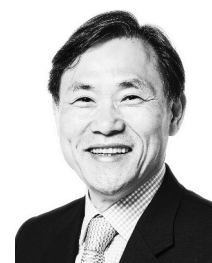
크(Myso)와 같은 전문적인 임팩트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회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셋째, 이웃(노숙자, 이주민 섬김, 엔젤트리 등)에게 깊이 스며드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청년벤처포럼은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시작했다. 그러다 ‘어!벤처스’라는 제3의 이름으로 전국 교회로 확장성을 키웠다. 결과적으로 100% 온누리교회에 의존했던 예산을 지금은 총예산 절반 이상을 외부 기관과 기업의 후원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재정적존도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 모든 사역의 열매에는 온누리교회 리더십의 헌신적인 결단이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청년들에 온전히 전할 수만 있다면 온누리교회라는 이름, 사회선교의 주도권과 명예를 내려놓고 ‘어!벤처스’라는 제3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셨다. 묵묵히 지원해주신 온누리교회와 사회선교본부 리더십에게 진정

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초기대회부터 수고하신 팀원들, 간사님들께 사랑의 빛을 크게 졌다.

‘어!벤처스’는 벤처업계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약 14개 팀이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받았다. ‘콩으로 마이오’(한동대 출신의 바이오 전문기업), ‘폴란드로 간 아이들’(신실한 크리스천 여성 감독의 영화), ‘모어맨’(BTS가 사용하는 업사이클링 백팩) 등이 그 주인공이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가 뿌린 청년들을 향한 사랑의 씨앗이 미래 크리스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날을 기대한다!



정진호 장로
(사회선교부 어벤처스사역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어!벤처스’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중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중남 서산시 쌍언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추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진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alia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zealand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abasi Chuoku Osakasi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아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도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균 김미정 김병조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웅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김유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온 박성배 박기열 박성진 박세웅 박진중 박철웅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현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민 오은규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유영숙 유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상민 이우람 이재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재원 전병현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요홍 주기철 지대근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혁중 최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홍희 홍기완 허원희 황중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한구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최종현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대만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김남열 김명철 김명철 김상철 김성목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수영 김승수 김승영 김영수 김 완 김병석 김세현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노대규 네트라 뉴이엘은 최태남 민현식 박근명 박씨마 배승현 비 켈 생애매는 사가르 왈라임 이원준 이상광 이승윤 이진이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랑 채제이미 최일관 최정현 추대식 크리스찬 허무슬란

◆**전도사(파트)**

강하람 권은영 김근희 김두일 김승갑 김혜영 김도균 김미정 김병조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웅 김태완 김현실 김홍주 김유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형 박성온 박성배 박기열 박성진 박세웅 박진중 박철웅 박형준 배행삼 백인규 변대섭 서현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식 스티브 안사무엘 앤드류김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민 오은규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유영숙 유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상민 이우람 이재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재원 전병현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요홍 주기철 지대근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용준 최혁중 최정훈 한은선 한화수 한홍희 홍기완 허원희 황중연

◆**전도사(전임)**

김승겸 김한구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최종현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대만

◆**협동목사**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강영재 강태욱 고다이라 강창제 강철호 이현규 이흥선 임광순 임병수 강영우 강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고은아 강성효 강인효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진익 마커스 문성희 박승룡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원 장세윤 장유미 지지영 장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재윤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호일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영서인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욱 정갑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병홍 김연수 김광일 김진진 김홍규 남병호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임한식 정성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안숙 김성수 김수정 김홍희 김희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영 이정민 이경우 이종현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양원명 김승현 김준호 이흥선 이희상 장옥룡 이문호 이영선 요시하라 마루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마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상권 이정엽 이종재 정장철

◆**부목사**

강구인 강일영 강일하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민 배성우 변법섭 서성광 남윤창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룡 심형진 염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임봉순 장동원 장재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정성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이현규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병수 강영우 강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고은아 강성효 강인효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진익 마커스 문성희 박승룡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원 장세윤 장유미 지지영 장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재윤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호일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영서인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욱 정갑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병홍 김연수 김광일 김진진 김홍규 남병호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임한식 정성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안숙 김성수 김수정 김홍희 김희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영 이정민 이경우 이종현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이현규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병수 강영우 강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고은아 강성효 강인효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진익 마커스 문성희 박승룡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원 장세윤 장유미 지지영 장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재윤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호일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영서인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욱 정갑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병홍 김연수 김광일 김진진 김홍규 남병호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임한식 정성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안숙 김성수 김수정 김홍희 김희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영 이정민 이경우 이종현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이현규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병수 강영우 강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고은아 강성효 강인효 강은주 김건우 김성현 김진익 마커스 문성희 박승룡 박유리 박종구 박지혜 박현욱 배윤희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상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이재경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원 장세윤 장유미 지지영 장선진 정은숙 정인교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지연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하재윤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연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Lee Jeff Yoo Jessica Yi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호일 권덕수 김경덕 김수호 김시안 김준영 김현중 남영서인택 윤영오 이정기 임병욱 정갑안

◆**시무장로**

고성환 권우중 김재동 박호택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신중수 여훈필 우승호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문호 이상현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코다이라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병홍 김연수 김광일 김진진 김홍규 남병호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임한식 정성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안숙 김성수 김수정 김홍희 김희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영 이정민 이경우 이종현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류시복, 장영애(예뎡교회 집사, 집사)의 아들 류상욱(온누리교회)

임진섭, 안화숙(인도네시아가나교회 집사, 집사)의 딸 임소현(온누리교회)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강창희, 손영희(광명한소망교회 집사, 집사)의 아들 강진영(광명한소망교회)

김동환, 서승숙(청주상당교회 집사, 권사)의 딸 김한나(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내용: 중장기쉼터 청소년의 성장, 자립 위한 후원과 지원봉사 요령
문의: 유호연 실장(031-399-799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마을수호봉사단 모집
내용: 프로그램 보조, 홍보 캠페인 제작, 방역 활동 등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강유림 사회복지사(02-3474-6080)

서초구립 느티나무쉼터 시니어 크리에이터 오디션
내용: 서초구 5070 대상, 1인 방송 활동가 선발 & 육성, 무료 교육 및 유튜브 활동 지원
문의: 김재훈 피디(02-6953-7133)

서초50플러스센터 사.아.다 공모전 개최
내용: 사소하지만 아득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15분 영상으로 제출
문의: 선조원PM(070-4304-6913)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재능나눔 강의봉사단 모집
내용: 전문지식을 가진 은퇴 신중년(50세이상)의 재능나눔 강의 봉사 진행
분야: 인문/교양, 독서/글쓰기, 법률/경제, 문화/예술 등
문의: 김유진 사회복지사(02-6953-7134)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재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보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기미습자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10/28(목) 서초D 김정연 성도 부친상 고 김태식

10/28(목) 동작 유숙희 집사 모친상 고 광영숙

10/30(토) 여의도 남상규 집사 모친상 고 이희자

10/30(토) 서빙고 원우현 장로 동생상 고 원인희

10/30(토) 강남B 박현수 성도 부친상 고 박종인

10/30(토) 양재 도정원 안수집사 부친상 고 도기섭

10/30(토) 서초B 송승환 성도 부친상 고 송호중

10/31(주일) 서초A 박성희 성도 모친상 고 유예희

10/31(주일) 송파A 최경애 권사, 서초B 최경숙 성도 부친상 고 최덕규

10/31(주일) 성북 김미애 권사 부친상 고 김원식

11/1(월) 한강 김해기 장로 모친상 고 양삼이

11/1(월) 양재 강인숙 권사 부친상 고 강범원

11/2(화) 송파A 이희진 성도 부친상 고 이정욱

11/2(화) 서초B 최수연 안수집사 부친상 고 최재명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급변해왔지만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CGNTV는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를 통해
변함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미디어선교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주십시오.

- CGNTV 이사장 이재훈 목사

CGNTV와 함께 미디어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재)온누리선교재단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CGNTV후원이 곧 미디어선교입니다”



신규후원 QR



증액후원 QR